

규훈서(閨訓書) 『여범(女範)』 연구

윤 분 희*

1. 머리말
2. 조선조 시대의 여성 교육과 규훈서
3. 규훈서 『여범』의 체제와 내용
4. 규훈서 『여범』에 표출된 여성 영웅성
 - 1) 남장과 출전(出戰)하기
 - 2) 배우자 선택과 대리인(代理人) 내세우기
 - 3) 지적 우월성과 공인(公人)되기
5. 맺음말

* 숙명여대 강사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조 시대 여성 교육서로 활용된 규훈서(閩訓書) 중에서 선희궁(宣禧宮) 영빈(映嬪) 이씨(李氏)가 쓴 『여범(女範)』을 소개하고, 그 특징적 성격과 차별적 의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조선조 시대 남성 작가들이 쓴 규훈서는 대체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를 확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여성적 속성을 가치있는 것으로 부각시키는 여성 교육서로 활용되었다. 한편 여성 작가가 쓴 규훈서는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남성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여성적 속성의 범주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남성 작가들이 쓴 규훈서와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이 쓴 여성 교육서로서, 영빈 이씨가 쓴 규훈서 『여범』은 여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사적·공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여성적 속성에 대하여 비교적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특이하다. 이 책은 1책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상층에서부터 하층에 이르는 여성들의 삶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여범』은 다른 규훈서에서 이상적 여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열녀, 계모, 효부 등이 등장하지만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목난녀』의 주인공 목난은 남성들에게만 개방된 공적(忠) 영역이 여성들에게 제한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쪽으로 변장하고 출전한다. 『한양홍처』의 맏씨녀는 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기 위해 배우자 탐색 방법을 사용한다. 『위모송씨』의 송씨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식적 관문인 교육이 여성에게 배제되었으나,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교육기관에서 발휘한다. 이렇게 『여범』에서 발휘된 여성 영웅성은 직접적 또는 남장이나 대리인 내세우기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 방법은 남녀 차별이라는 성차별적 사회 제도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전략적 방편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조선조 시대의 여성 교육서 『여범』에 드러나 있는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방식이나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었던 여성적 속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규훈서 자체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 규훈

서의 실상과 그 존재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핵심어 : 규훈서, 여성 작가, 여성 교육서, 여성 영웅성, 남장, 대리인 내세우기,
공적 영역, 우회적·전략적 방법

1. 머리말

조선조 시대는 유교 이념을 중시한 교육지상주의 시대였다. 조선조 시대에는 중앙에 성균관과 그 아래 5부 학당과 지방의 향교, 그 밖의 서원이거나 서당 등 수많은 교육 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다. 이들 교육 기관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식적 통로였으며, 오직 남성만을 위한 교육 기관이었다. 따라서 교육은 어디까지나 남성 본위의 교육이었으며, 양반 계층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조 시대 여성을 위한 공식적 교육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조선조 시대의 여성 교육은 주로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에게서 딸로, 결혼한 후에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는 경험적 차원의 개인적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편에서는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각종 규훈서를 번역하거나 편찬하였다.

조선조 시대 여성 교육서인 규훈서는 대부분 남성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 송시열의 『계녀서(戒女書)』, 이황의 『규중요람』, 그리고 『여교(女教)』, 『열녀(烈女)』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영조에 의해 『여사서(女四書)』가 편찬되기도 했다. 이들 규훈서는 대체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남성의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규훈서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를 확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여성적 속성, 즉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희생 등을 가치있는 것으로 부각시켰다.

그런데 남성 작가 또는 남성이 편찬한 규훈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지만, 조선조 시대 여성 교육서로 사용된 규훈서 중에는 여성들에 의해 쓰여진 작품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 한씨의 『내훈(內訓)』과 사도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映嬪) 이씨(李氏)의 『여범(女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들 규훈서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남성 작가들의 규훈서와 함께 폄하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여성 작가들이 쓴 규훈서는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남성에게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 여성적 속성의 범주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남성들의 의해 쓰여진 규훈서와 차이가 있다. 『내훈』은 여성의 인격과 도덕성을 중시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완성을 전제로 조선 조 시대의 여성의 윤리와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여범』(영빈 이씨)에서는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삶을 사적, 공적 영역에 걸쳐 폭넓게 보여주고 있어서 특이하다. 특히 『여범』의 “변녀(辯女)” 편에는 여성의 자기 표현이 엄격하게 금지된 시대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술(辯論)’로 위기를 극복한 여성들을 통해 오랜동안 남성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자기 표현력’이 여성들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녀(文女)” 편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적·공적 교육이 여성들에게 제한’되었던 시대에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삶의 행적을 남기거나 저술 활동을 통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글을 저술하고, 교육자로서 공인의 삶을 살았던 여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무녀(武女)” 편은 ‘여성에게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됨으로써 ‘여성 영웅성’의 표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에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직접적으로 또는 위장된 방법으로 발휘하였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렇듯 이들 규훈서는 누구의 관점에서 여성적 속성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남성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규훈서와 차별화되고 있다. 즉 『내훈』과 『여범』은 여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적·사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여성적 속성에 대하여 비교적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영빈 이씨의 『여범』은 여타의 규훈서에 비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¹⁾ 이씨의 『여

1) 『여범』은 두 가지가 전한다. 첫째, 원래 『여범』은 중국 명나라 왕씨 집경공(集敬公)의 부인 유씨(劉氏)가 지은 규훈서이다. 유씨가 지은 열 한 편의 『여범첩록(女範捷錄)』은 1580년에 중국 명나라 신종 황제가 편찬한 『여사서』에 수록

범』에 대한 기왕의 논의는 아주 간략한 해제²⁾ 정도이다.

본고는 조선조 시대 여성 작가에 의해 쓰여진 규훈서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적 속성 발휘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여범』(영빈 이씨)을 대상으로 하여 『여범』에 나타난 여성 영웅성의 표출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조 시대의 여성 교육과 규훈서인 『여범』의 체제와 내용을 알아보고,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었던 여성 영웅성의 표출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조선조 시대의 규훈서가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여성 교육서로 폄하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 서사문학사에서 여성 영웅성의 서사적 진술 양상을 '여성영웅의 규훈류'로 확대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2. 조선조 시대의 여성 교육과 규훈서

조선조 시대는 교육을 통하여 유교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한 교육지상주의 시대였다. 조선조 시대의 교육 지상주의는 공적, 사적인 교육 기관을 통해 실행되었다. 중앙에 성균관과 그 아래 오부(五部) 학당, 지방의 향교, 그밖의 서원과 서당 등 수많은 교육 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다.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조 때 임금의 명으로 편찬된 『여사서』 안에 들어 있다. 둘째, 독립된 책으로 전하는 『여범』은 우리나라 여성이 직접 지은 규훈서이다. 조선조 시대 영조의 빈이었던 선희궁 영빈(映嬪) 이씨(李氏)가 지은 여성 교육서이다. 이 책은 영빈 이씨가 지은 친필 필사본으로, 동경대학교 도서관 남계문고(南葵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1977년 한국고전간행회에서 영인본으로 출판한 것이 국내에 전하고 있다.

기왕의 논의는 『여사서』에 전하는 중국의 「여범」을 대상으로 하고, 규훈 또는 규훈류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이다.

- 2) 선희궁 영빈 이씨, “女範 解題”, 영인판 『여범(女範)』 쉰(대제각, 1988), pp.1~4 참조.

이들 교육 기관은 어디까지나 양반 계층 위주의, 그리고 남성 본위의 교육이었다. 따라서 조선조 시대는 계층을 불문하고 여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제도적인 교육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³⁾ 그리하여 조선조 시대의 모든 여성들은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식적 기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사적(가정)인 존재로 제한되었다.

여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해도 여성 교육은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 비계획적이고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조선조 시대의 여성 교육은 출가하기 전에는 어머니에게서 딸로, 출가한 뒤에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는 경험적 차원의 교육만이 중시되었다. 교육 내용도 가정내의 범절, 대소사에 대한 식견, 처신, 행동거지, 언어 예절, 여성으로서의 마음가짐 등 구체적이면서도 가정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조선조 시대 상층 여성들에게는 성장한 후에는 음식과 길쌈, 바느질 등 가정 생활에서 필요한 살림을 위한 기능과 함께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담고 몸에 익혀서 배게 하는 수신의 교육이 중시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 시대에 가정에서 행해지는 여성 교육의 한 방편으로 제작된 것이 규훈서이다. 규훈(閩訓)은 조선조 시대의 유교적 이념인 충, 효, 열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덕목과 가치 체계를 여성에게 알맞게 재구성한 것이다.⁴⁾ 그리하여 조선조 시대에 여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훈 서적들이 편찬되거나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된 규훈서는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편찬된 규훈서를 그대로 수입하거나, 중국의 규훈서를 바탕으로 하여 편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예기』의 내칙편(內則篇)과 유향의 『열녀전(烈女傳)』, 당나라 때 위운의 딸이 지은 『속내훈(續內訓)』, 원나라 사람 허희재가 지은 『내훈(內訓)』 및 『여교서(女敎書)』가 대표적이다. 또한 한나라의 반소가 지은 『여계(女誡)』, 당나라 때 송약서가 지은 『여논어(女論語)』, 명나라의

3)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교육 연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p.7 참조.

4) 이성림, 『韓國文學과 閩訓研究』(관동출판사, 1998), p.7.

인효문황후가 지은 『내훈』, 명나라의 왕절부가 지은 「여범(女範)」을 묶어 놓은 『여사서(女四書)』 외에 황보시가 지은 『열녀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규훈서는 이덕무의 『사소절』, 『삼강행실도』, 소혜왕후 한씨의 『내훈』, 이황의 『규중요람』, 송시열의 『계녀서』, 영빈 이씨의 『여범』, 빙허각 전주 이씨의 『규중총서』 외에 『요경언해』 등이 있다. 그의 작자 미상의 규훈서로 각 가문에서 편찬된 『규범선영』, 『규범』, 『여자순지』, 『여자소학』, 『규곤의칙(閨闈儀則)』, 『규감녀교』, 『여행록』, 『녀계언약』, 딸 경계한 말이라, 『어제여사서(御製女四書)』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선조 시대 규훈서에서 내세운 여성 교육의 목적은 현대와 같이 인간성 도야나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여성 교육은 오직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미덕으로만 전제되었다. 이러한 여성 교육의 목적은 규훈서의 집필 동기를 밝힌 『여계』의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남자란 능히 스스로 피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근심하지는 않으나 단지 슬퍼하는 바는 모든 딸들이 바야흐로 마땅한 다른 집안 가문에 들어가서 용의를 잃게 할까봐 염려되며 집안 종족에게 부끄러움을 취하게 할까봐 두려와 하니라.⁵⁾

후한의 반소가 지은 『여계』는 여성의 본분을 경순을 바탕으로 하여 출가전에는 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출가한 후에는 남편을 정성껏 받드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계』는 여성의 본분으로 겸양, 인욕, 비약 등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지성인인 반소도 여성의 역할이나 행동에 있어서 유효적 사고방식이 강요하는 부당한 제약이나 억압에 대하여 회의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5) 이규순 교주, “여계(女誡) 서문(序文)”, 『女四書』(세계문화사, 1983), p.26.

이같은 태도는 남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여성의 역할 축소에 대하여 여성들 자신도 이를 당연시하는 묵시적 동의 속에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도는 아내가 되는 커다란 예의이니 대저 공경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리고 지니는 것을 말함 이요, 대저 순종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대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함이니 오래도록 기다리고 지니는 것을 만족한데서 멈춰 그칠 줄을 아는 것이요, 관대하고 여유가 있는 것은 온공하여 낮은 것을 숭상하는 바이니라.⁶⁾

여성은 경(敬)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수모나 학대까지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뜻으로, 순(順)이란 너그러움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 곧 자기비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 여성을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며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하늘 처럼 떠받드는 것을 당연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엄격한 상하관계에 의한 일방적 순종만이 강요되었으며, 더욱이윗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시비를 따지지 말고 따르라는 복종의 윤리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도구나 방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며느리들에게는 자신의 가족내 수직적 위치에 관계없이 시숙이나 시누이들에게도 오로지 순종과 겸양할 때만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렇듯 규훈서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조 시대 여성 교육의 장은 사적 영역인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여성을 사회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사적 영역인 가정적 존

6) 이규순 교주, "경순장(敬順章)" 第三, 위의 책, p.35.

재로 인식하는 조선조 시대의 사회 구조와 유교 사상에서 기인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규훈서가 가정에서 행해지는 여성 교육의 한 방편으로 제작 되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규훈서 『여범』의 체제와 내용

『여범』은 원래 중국 명나라 왕씨의 부인인 왕절부(王節婦) 유씨(劉氏)가 지은 규훈서이다. 유씨는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어려서부터 글을 잘 하였으며, 성장해서는 일찍 과부가 되어 절개를 지킨 인물로 전한다. 유씨가 지은 열 한 편의 『여범첩록(女範捷錄)』은 1580년에 중국 명나라 신종 황제가 편찬한 『여사서』에 수록되어 있다. 유씨의 「여범」은 조선조 시대 영조의 명으로 편찬된 『여사서』 안에 들어 있다. 「여범」은 천편(天篇)인 「여계(女誡)」와 「여논어(女論語)」, 지편(地篇)인 「내훈」 뒤에 나오는 인편(人篇)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독립된 책으로 전하는 『여범』은 우리나라 여성이 지은 규훈서로, 조선조 시대 영조의 빈이었던 선희궁(宣禧宮) 영빈(映嬪) 이씨(李氏)⁷⁾가 지은 여성 교육서이다. 이 책은 영빈 이씨가 직접 지은 친필본으로 동경대학교 도서관 남계문고(南葵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1977년 한국고전간행회에서 영인본으로 출판한 것이 국내에 전하고 있다.

그런데 영빈 이씨가 지은 『여범』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영조의 명으로 편찬된 『여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 교육서 「여범」과는 체제 및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사서』에 실려 있는 「여범」의 체제는 총론(總論)편, 후덕(後德)편, 모의(母儀)편, 효행(孝行)편, 정렬(貞烈)편, 충의(忠

7) 영빈 이씨(?~1764)는 조선 왕조 21대 영조의 빈(嬪)이며, 장헌 세자(莊憲世子 : 사도세자)의 친 어머니이기도 하며, 『한중록』의 저자인 혜경궁 홍씨의 시어머니이다.

義)편, 자애(慈愛)편, 병례(秉禮)편, 지혜(智慧)편, 권검(勸儉)편, 재덕(才德)편의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영빈 이씨가 지은 『여범』의 체제는 1책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매권마다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권

성후(聖后)
모의(母儀)
계모(繼母)

제2권

효녀(孝女)
현녀(賢女)
변녀(辯女)

제3권

문녀(文女)
무녀(武女)
정녀(貞女)

제4권

열녀(烈女)

영빈 이씨가 지은 『여범』의 내용을 보면 최상층에서 하층 여성에 이르는 여성들의 삶을 공적, 사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권 1에는 성후(聖后), 모의(母儀), 계모(繼母) 등 세 가지 여성상이 제시되어 있으며 총 22명의 여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여성들은 중국의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그들의 삶의 행적을 구체적, 사례별로 보여주고 있다. 성후(聖后)편에는 성모태사, 주선강후, 명덕마후, 장문덕후, 선인고후, 황명고후 등 6명의 상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공인으로서의 여

성의 역할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모의(母儀)에서는 노희경강, 노사모, 추맴모, 우담모, 하남윤모 등 13명의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어머니로서 공인인 아들의 삶에 길잡이가 되는 지혜와 현명함을 발휘한 '현명한 어머니(賢母)'의 삶을 살았던 존재이다. 계모(繼母)편에서는 제의 계모, 위망자모, 자모스시, 노희경강 등 특수한 입장에 있는 어머니, 특히 가족 제도상 이중의 불리한 입장에 있는 여성의 삶의 표본인 '계모'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계모는 사악하고 이기적이며 개인적 삶에 집착하였던 부정적인 삶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인과관계에서 '의(義)'를 지킨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악녀상의 표본인 계모와 거리가 있는 여성들이다.

권 2에는 효녀(孝女), 현녀(賢女), 변녀(辯女)에 속하는 세 가지 유형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효녀(孝女)편에는 총 9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들 여성들은 친부모와 자식간의 효를 지킨 효녀라기보다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효를 실천하였다는 측면에서 '효부'이다. 효부에 속하는 여성들은 시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해 '물질적 공양' 뿐만 아니라 '살신성인'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가족 관계를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용기를 강조하고 있다. 현녀(賢女)편에서는 총 10명의 여성의 삶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여성들은 상층 여성으로서 공인인 남편들을 지혜와 현명함으로 인도하여 사회에 공헌한 '현명한 아내' 즉 '양처(良妻)'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현녀는 여성에게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시대에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적 속성 발휘를 위해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허용된 남성, 즉 '배우자 선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변녀(辯女)편에는 8명의 여성의 삶이 제시되어 있다. 변녀들은 여성의 자기 표현이 엄격하게 금지되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아내로서, 딸로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론(辯論)'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변녀들은

그동안 남성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자기 표현력’, 즉 ‘언술(言術)’ 능력이 여성들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이하다.

권 3에는 문녀(文女), 무녀(武女), 정녀(貞女)의 세 가지 여성상에 총 33명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3권에 제시된 여성들은 『여범』의 권 1과 2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비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다. 문녀(文女)편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인 교육이 여성들에게 제한되었던 시대에 개인적으로 글 공부를 해서 공적 영역에 진출했었던 특별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녀에 속하는 여성들은 당시 여성에게 금지되었던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삶의 행적을 남기거나, 저술 활동을 통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글을 남기고, 자신이 배웠던 글 공부로 자녀 교육을 실천하고, 공직에 나아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었던 공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이하다. 이들 문녀는 역사가 남성들만의 역사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더욱이 무녀(武女)편에서는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여성에게 제한됨으로써 여성 영웅성의 표출이 불가능했던 사회에서 여성영웅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무녀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문녀나 정녀 등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위장된 모습으로 발휘하였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영웅의 서사적 진술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정녀(貞女)편에서는 여성들에게 개가(改嫁)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예법과 도를 중시하여 절개를 지켜 개가하지 않았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정녀에 속하는 여성들은 ‘살아있는 열녀’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녀 또는 문녀와 차이가 있다.

권 4에는 총 41명의 열녀(烈女)가 제시되어 있다. 열녀는 『여범』에서 가장 많은 수의 여성들의 삶의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가장 비중있게 거론한 여성들이다. 이들 열녀는 부부의 예와 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여성들로서, 배우자인 남성을 위해 ‘죽어 갔던 열녀’들이다. 이러

한 점에서 열녀는 권 3에 제시된 정녀(貞女), 즉 부부의 예와 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유지하고 개가하지 않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여성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열녀는 정녀와 달리 상하층의 모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영빈 이씨의 『여범』은 조선조 시대의 수많은 여성 교육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녀, 계모, 효부, 현모, 양처 등의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여성의 역할, 즉 교육자(文女) 혹은 변론가(辯女), 군인(武女)으로서의 활동에 여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서 다른 규훈서와 차별화되고 있다.

4. 규훈서 『여범』에 표출된 여성 영웅성

1) 남장과 출전(出戰)하기

『여범』에 있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발휘된 여성 영웅성의 표출 양상을 추출해 보겠다. 먼저, 여성들에게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됨으로써 여성 영웅성의 표출이 불가능했던 사회에서 극소수의 여성들은 자신의 영웅성을 직접적으로 또는 위장된 모습으로 발휘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목된다. 대표적 이야기가 「목난녀」⁸⁾이다.

「목난녀」 이야기의 주인공 '목난'은 당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12년 동안 변방의 수자리(군복무)를 하였는데, 아무도 그녀가 여자인줄 몰랐다. 그녀가 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는 다

8) 선희궁 영빈 이씨, 위의 책, pp.137~140.

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있다. 우선, 목난은 임금이 군대를 점고하는 군중 글월 12권에 여자 이름은 없고 모두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아버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군중 글월에 아버지 다음이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⁹⁾

이에 목난은 여자이지만 군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아버지를 이어 군대에 복무할 것을 결심한다. 그녀는 군마와 기로마를 사고 혁과 저재 채를 산 후 부모에게 하직하고 군에 입대한다. 그후 목난은 변방 오랑캐를 맞아 10년간 싸우고 돌아온다.

천자는 그녀에게 녹봉을 내리고 소망하는 바를 묻는다. 목난은 상서랑(배우자)을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군대에 남고자 하는 뜻이 있으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온 목난은 부모와 아우 등 남자 형제, 옛 동무들과 상봉한다. 고향에 돌아온 후 그녀는 비로소 ‘넓은 전복(戰服)’을 벗고 ‘옛 치마’를 다시 입게 된다.¹⁰⁾ 군대와 가족, 이웃들은 목난이 12년 동안 남장으로 변복하고 전장을 종행하였으나, 그녀가 여자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목난녀」 이야기에서는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입신양명함으로써 가문을 빛낼 수 있으며, 공적 영역인 군대가 남녀를 차별화하고 있는 성차별적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양의 군중 글월을 보니 임금이 군자를 점고하고 군중 글월 십이권에 권권이 사나이 이름이 있으되, 내 아비로 아래 없고 목난이 장형이 없으니 원컨

9) 목난이 전장터로 나가게 된 두 번째 이유, 즉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에 입대하고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딸도 아들과 같은 효를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의 만화 영화 『물란』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특이하다.

10) “전복(戰服)”을 “치마”로 갈아 입는 것은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의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인 세 쌍둥이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 여성 영웅성을 발휘한 후 여성으로 밝혀지는 것과 동일하다. 줄고,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6호(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pp.271~282 참조.

대 기로마와 말을 사 이로부터 아버를 대신 들어가리라. 동녘 저재 군마를 사고 서녘 저재 기로마를 사고 남녘 저재 혁을 사고 북녘 저재 채를 사 아침에 부모를 하직하고 날래 황하수 가에 가니……11)

목난은 단순히 자신의 여성적 속성을 개인적 욕망, 곧 효(孝)를 실천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고자 한 것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공적 영역의 상징인 군대, 곧 충(忠)의 영역이 남성에게만 개방된 것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장으로 출전하였다.

이를 위해 그녀는 남장(男裝)으로 변복하고 출전한다. 목난의 남장은 여성에게 제한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선택된 것이다. 목난의 변복은 「박씨전」에서 박씨 부인이 추녀에서 미녀로 변신한 탈갑과 「금방울전」의 동해 용녀(龍女)가 용녀에서 방울로 변신하고, 「옥주호연」의 주인공 삼옥주와 「방한립전」의 여자 주인공 방관주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변복한 남장(男裝)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범』의 「목난녀」 이야기는 ‘여성영웅의 서사’라는 틀에서 여성영웅 소설과 서사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난녀」 이야기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근원을 ‘여성영웅의 설화’로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영웅의 규훈류’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서¹²⁾를 제공하고 있어서 의의가 있다.

「목난녀」 이야기는 규훈서 『여범』이 여성적 속성에 대하여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구체적 예이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남성 작가에 의해 쓰여짐으로써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여타의 규훈서와 달리 여성적 속성에 대하여 여성중심적인 시각에서

11) 선회궁 영빈 이씨, 卷之三 “무녀(武女)”편, 위의 책, p.38.

12) 『여범』(영빈 이씨)의 卷之三에는 「목난녀」 외에 「세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도 여성에게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됨으로써 여성 영웅성의 표출이 불가능했던 사회에서 극소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또는 위장된 모습으로 발휘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긍정적이어서 차이가 있다.¹³⁾ 이러한 관점은 『女四書』의 「여범」편¹⁴⁾에도 드러나 있다. 더욱이 「여범」편에는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성의 발휘에 관심을 둔 구체적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의편(忠義篇)”¹⁵⁾이라는 제목 아래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여성 영웅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충의편”에 나타나 있는 여성 영웅성에 대한 진술로써 대표적인 이야기는 진나라의 ‘주부인’과 금나라의 ‘양부인’ 등의 행적을 보여준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영빈 이씨의 『여범』은 공적 영역, 곧 ‘충’의 영역에서도 여성적 속성이 발휘되었으며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사서』의 「여범」과 공통적이다. 이 점은 그동안 규훈서가 여성적 속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있다고 봄으로써, 모든 규훈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왔던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배우자 선택과 대리인(代理人) 내세우기

『여범』에는 상층 여성으로서 공인인 남편들을 지혜와 현명함 등의 여성적 속성으로 인도하여 공적 영역에 기여하게 한 ‘양처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양처들은 ‘배우자 선택’에 특별한

13) 그동안 여성 교육서인 규훈서가 여성적 속성을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여 규훈서 전체를 폄하하여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 규훈서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통해 여성 교육서로서 규훈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14) 『여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여범」은 영빈 이씨가 지은 『여범』과 차이가 있다. 중국의 「여범」은 집경공의 아내 유씨(劉氏)가 지은 열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빈 이씨는 중국의 규훈서 「여범」을 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편성해서 쓴 책이다. 유씨의 「여범」에는 “충의편(忠義篇)”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씨의 「여범」에는 卷之三 “무녀(武女)”편에 2명의 여성을 실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여범」과 이씨의 『여범』은 공적 영역, 곧 ‘충’의 영역에서도 여성적 속성이 발휘되었으며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15) 이규순 교주, 위의 책, pp.176~196.

관심을 표명한 여성들이 있어서 특이하다. 「한냥홍처」와 「초장번희」, 그리고 「제숙유녀」¹⁶⁾ 등의 이야기가 여기에 속한다.

「한냥홍처」 이야기¹⁷⁾가 대표적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맹씨녀는 “몸이 살지고 검고 힘이 능히 돌확을 들” 수 있을 정도로 물리적 힘이 강한 여성이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맹씨녀의 외모는 여성적 속성보다 남성적 속성이 강한 모습이다.

그런데 맹씨녀는 삼십세가 되어서도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늦게까지 결혼하지 하지 않은 이유는 “어질기가 냥홍같은 남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침 ‘한냥홍’이란 남성이 있어서 맹씨의 뜻을 알고 청혼한다. 맹씨녀는 “스스로 거 할 옷이 있다” 하고, “굴근 옷을 고쳐 입고 머리를 짜고 나와” 냥홍을 배우자로 맞이한다.

이에 한냥홍은 “내자로 옷 입는 사람과 더불어 한 가지로 세상을 피하고자” 하여 “사치스러운 비단 옷을 입고 성덕하기”를 바라는 뜻이 없음을 밝힌다. 맹씨녀는 자신의 뜻한 바와 한냥홍의 뜻한 바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이 일로 그녀는 ‘맹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한냥홍처」의 주인공 맹씨녀는 자신의 영웅적 기상과 주체성, 지인지감, 지혜로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기 위해 늦게까지 배우자 탐색에 관심을 둔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청렴한 뜻을 함께 할 남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직접 선택한 여성이다. 맹씨녀는 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직접 진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허용된

16) 『여범』 卷之二의 “현녀(賢女)” 편에는 10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대체로 이들 여성들은 공적 영역이 여성에게 제한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현녀들은 여성에게 제한된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배우자 선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대리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7) 선회궁 영번 이씨, “현녀(賢女)”, 위의 책, pp.79~81.

남성들을 지혜와 현명함으로 인도하여,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전략적 방편으로 배우자 선택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냥홍처」 이야기는 ‘배우자 선택 이야기’의 유형에 속한다. 맹씨녀는 ‘범상하지 않은 외모’와 ‘원대한 의지’ 등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박씨 부인과 같은 외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여성에게 폐쇄된 사회에서 박씨 부인은 남성, 곧 대리인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배우자 탐색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다.¹⁸⁾ 맹씨도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여성적 속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사회 제도 때문에 우회적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이렇듯 현명한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여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여범」의 “지혜편(智慧篇)”¹⁹⁾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혜편”에서는 남성을 능가하는 지혜를 지닌 여성들이 대리인인 배우자를 통해 뛰어난 능력을 표출하고 있는 실존 인물들이 제시되어 있다. ‘양창처’와 ‘안녀’, ‘번녀’, ‘악양자처’ 등이 대표적인 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여성적 속성, 즉 ‘지혜’를 대리인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들 이야기는 여성영웅의 서사와 ‘배우자 탐색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범』의 「한냥홍처」 이야기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을 배우자 탐색담²⁰⁾으로 확장시키는 문제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영웅의 서사는 남성영웅의 영향을 받고 후대에 파생된 것이 아니라, 남성영웅의 서

18) 맹씨녀는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 중에서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시대에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기 위해 배우자 선택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던 박씨 부인(「박씨전」)과 유사하다.

19) 이규순 교주, 위의 책, pp.197~206 참조.

20) 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 양상연구」, 『한국언어문학』 36집(한국언어문학회, 1996) 참조.

사와 다른 독자적인 서사적 기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²¹⁾고 할 수 있다.

3) 지적 우월성과 공인(公人)되기

교육은 과거(科擧)라는 공식적 관문을 통해 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는 남성에게만 개방되었다. 여성들은 모든 공적, 사적 교육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차별받았다. 그런데 규훈서 『여범』에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식적 관문인 교육이 여성에게 배제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삶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여범』의 “문녀(文女)” 편에는 소수의 여성들이 ‘글 공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공적 교육기관에서 발휘하여 교육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특이하다. 「위모송씨」와 「당정씨」, 「당서충용」, 「한조대가」 등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위모송씨」²²⁾ 이야기의 주인공 송씨는 어려서 어머니가 죽었다. 그리하여 송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직접 기르는 것뿐 아니라, ‘주관’이란 책을 손수 써서 가르쳤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저술한 공적(책)을 전수할 아들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딸인 송씨에게 전수할 것을 결심한다. 그후 송씨는 전쟁 중에도 글 공부를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책을 지고 다니면서 낮에는 나무하고 밤에는 아들 위령을 손수 가르치면서도 방적하는 일을 폐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송씨는 무남독녀로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아버지 대를 잇고 있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 「방한립전」의 주인공 방관주와 비슷하다.²³⁾

21) 이는 영웅소설의 하위 유형으로 여성영웅소설과 남성영웅소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이다. (줄고, “여성영웅소설의 명칭과 개념”, 『여성영웅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2집(한국문학회, 2002.12), pp.174~177)

22) 영빈 이씨, “문녀(文女)”, 위의 책, pp.133~135.

23) 「방한립전」의 방관주는 동성끼리의 계약결혼과 양자의 입양, 양자에게 여성의

그후 전쟁은 끝났으나 어지러운 세대에 글을 폐하고, 서책이 흩어져 분별할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피난 중에도 송씨 자신이 직접 가르친 아들 '위령'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태상'이란 벼슬을 하게 된다. 난세에 글을 폐하여 서책(書冊)이 흩어지고 폐지된 글을 분별할 사람이 없었는데, 송씨의 아들 위령만이 폐지된 글을 분별할 수 있었다. 이에 위정자인 부견은 선비들의 글을 가르칠 이가 없어 스승을 찾던 중 위령의 어머니 송씨만이 '주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부견은 위령의 어머니 송씨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하고, 선비를 가르칠 선생으로 송씨를 임명한다. 그때 송씨의 나이는 80세였다. 그녀는 선비들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을 하사받고, 생원 100명과 진사 20명을 학생으로 받아들여 폐지되었던 글 '주관'을 가르치게 된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송씨녀는 공식적으로 '선문군'이란 작호를 받는다.

이렇게 송씨녀는 여성으로서 남성의 고유한 영역인 공적 교육기관의 지도자로서,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다른 여성영웅들처럼 남장(男裝)이나 변신(變身)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감추거나 남성을 대리인(代理人)으로 내세우는 등의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하고 있어서 다른 여성영웅들과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송씨가 사회적 재난인 전쟁으로 남성들이 부재하는 동안 남성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송씨녀는 공적 영역에의 진출이 여성에게 제한되었던 시대에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였던 공인(公人), 즉 교육자(教育者)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던 특별한 여성이다.

더욱이 「위모송씨」 이야기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

성씨(姓氏) 부여하기, 입신양명하기 등을 통해 부권제 가족과 다른 여성중심의 모권제 가족을 건설한다. 방관주가 건설한 모권제 왕국은 「위모송씨」의 송씨녀가 남성이 부재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줄고, 「방한립전에 나타난 모권제 가족」, 『숙명어문논집』 제4집(숙명어문학회, 2002).

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있어서 무녀(武女)편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차별화된다. 송씨는 총이나 칼과 같은 물리적(남성적) 힘 대신 지적 능력, 곧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여성영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이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영웅의 개념은 군담과 관련된 '전쟁 영웅'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그 의미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²⁴⁾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21세기 오늘의 관점에서 조선조 시대에 존재했었던 규훈서를 읽고 평가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 교육서로서 『여범(女範)』(영빈 이씨)이 읽혔던 18세기 당대의 사회 제도나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주인공이 처한 역사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일로써 조선조 시대의 규훈서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읽고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이다.

본 논문은 조선조 시대 여성 교육서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규훈서 『여범』에 나타난 여성 영웅성의 표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시대의 여성 교육은 사적 영역 내에서 어머니, 며느리, 아내로서 가정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이를 위해 각종 규훈서가 편찬되었는데, 이들 규훈서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 도야나 인격의 완성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덕목 수양에

24)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여성영웅은 전쟁 영웅보다 환경운동가나 평화운동가, 교육 개혁운동가 또는 여성운동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있었다.

둘째, 영빈 이씨의 규훈서 『여범』은 1책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최상층에서 하층에 이르는 여성들의 삶을 사적, 공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여타의 규훈서와 차이가 있다. 『여범』에는 조선조 시대 수많은 여성 교육서에서 이상적 여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열녀, 계모, 효부, 현모, 양처 등의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 책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영웅적 능력 발휘를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공인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서 다른 규훈서와 차별화된다.

『여범』에서 여성들은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됨으로써 '여성 영웅성'의 표출이 불가능했던 사회에서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직접적으로, 또는 위장된 모습으로 발휘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목된다. 「목난녀」의 주인공 목난은 남성들에게만 개방된 공적(忠) 영역이 여성들에게 제한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복으로 변장하고 무인(武女)으로 출전한다. 「한양홍처」의 팽씨녀는 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우자 탐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여성(賢女)이다. 「위도송씨」의 송씨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식적 관문인 교육이 여성에게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 공부를 통해 공적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탁월한 지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교육 지도자(교육자 : 文女)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규훈서 『여범』에 표출되어 있는 여성 영웅성은 그 표출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우회적 방편으로 남장(男裝), 대리인 내세우기 등을 전략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방법들은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남녀 양성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들은 여성의 공적 생활이 완전히 차단된 조선조 시대의 상황, 즉 성차별적 사회 제도 내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우회적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조 시대의 규훈서 『여범』(영빈 이씨)은 여성 작가가 쓴 여성 교육서로서, 기존의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고 체제 내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여성들의 의식적 각성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는 『여범』에 드러나 있는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방식이나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었던 여성적 속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규훈서 자체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 규훈서의 실상과 그 존재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지연, 「『조선명부전』에 반영된 여성인식」, 『여성문학 연구』 제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여성문학 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 선희궁 영빈 이씨, 영인본 『여범』쑤, 대제각, 1988.
- 소혜황후 한씨·송시열, 『內訓·戒女書』, 명문당, 1994.
-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교육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80.
- 이규순 교주, 『女四書』, 문학세계사, 1983.
- 이성림, 『韓國文學과 內訓研究』, 관동출판사, 1998.
- 윤분희,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 연구」, 『여성문학 연구』 제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 _____, 「박씨전의 여성 영웅성 연구 - 활자본 「박씨부인전」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문화』 제18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 _____, 「방한립전에 나타난 모권제 가족」, 『淑明語文論集』 제4집, 숙명여대 숙명

어문학회, 2002.

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6집, 한국언어문학회,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Yobom*(女範), a Moral Education Text for Women(閨訓書)

Yoon, B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Yobom*(女範) *Exemplars for Women*, a work in the genre of moral education texts for women(閨訓書) during the Choson Dynasty, written by Lady Yi(李氏) (rank: Yongbin(映嬪); posthumous title: Sonhui), a royal concubine, and to elucidate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In general, such texts from this period, written by men, were used as educational texts for women and placed considerable value on "femininity," which was necessary for the consolidation of a male-centered patriarchal society. On the other hand, similar works penned by women differ from those produced by men in that they do not limit the definition of "femininity" to women's devotion, service, and subservience to men.

In particular, *Yobom*, an educational text for women created by a Korean woman (Lady Yi) is unique because it is based on a woman's perspective and maintains a comparatively independent stance on the "femininity" that is displayed in private and public(忠) arenas. Divided into one volume and four fascicles, this work is noteworthy for its depiction of the lives of women from a variety of social classes. In addition, *Yobom* is noticeable for its special interest in women who employ their exceptional talents in the public arena, even as it portrays types of women who were seen as "ideal" in other similar texts--virtuous wives, stepmothers, and filial daughters-in-law. For instance, to overcome the restriction of the public arena (patriotic loyalty)

solely to men and women's exclusion from it, Mulan (Korean: *Mongnan*) of "Mongnannyo(목난녀)" dresses in male clothes and participates in battles. To surmount similar limitations and to make use of her outstanding abilities in the public arena, Mistress Maeng of Hannyang Hongch'o(한양홍처)" goes on a search for a suitable spouse. Although education, the officially sanctioned gateway to the public arena, is barred to women, Mistress Song in "Wimo Songssi(위모송씨)" nevertheless devotes all her effort to learning and finally employs her intellectual power at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ther words, female heroism in *Yobom* is express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thods including cross-dressing and the use of proxies. In a sexist social system, such indirect methods were strategically necessary for wome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goes beyond existing discussion on moral education texts for women from the Choson Dynasty, which has focused mainly on the limitations of such works by negatively assessing the methods used by the heroines of *Yobom* to enter the public arena and the "femininity" that they exhibit in the public arena. Instead, it sheds light on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individual moral education texts for women and makes it possible to evaluate their *raison d'être* positively.

key words : Moral Education Text(閨訓書), education texts for women, Female Heroism, methods including cross-dressing the use of proxies, indirect or strategical methods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